

초등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통합예술적 수업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민 경 훈**

우리나라 제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가 등장하였으며, 3-6학년의 과정에서는 그림 및 신체활동을 포함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통합예술적인 형태로 음악교육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철학은 심미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이고,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수반한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적 능력과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배가시켜 주는 것을 근본원리로 삼아야 한다. 교과상호간에 비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교과는 별 의미가 없다. 본 논문은 교과상호간의 비연계적인 통합교과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통합예술적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음악교육, 초등음악교육, 통합예술적 음악교육, 음악수업모형

차 례

- I. 서론
- II.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 III. 통합예술적 음악학습의 구조 및 지도방법
 - 1.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의 예술적·심미적 양상
 - 2. 학습의 구조
 - 3. 지도의 방법
- IV. 통합예술적 음악학습의 실제: 바다
- V. 결론

* 본 논문은 2005학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 대구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교수.

I. 서 론

우리나라 제4차 교육과정(1982)이후부터 “즐거운 생활”(초등학교 1-2학년)이라는 통합교과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3-6학년의 음악교과에 그림 및 신체활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합교과지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현행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사들이 통합예술적 음악수업을 구상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합교과목인 “즐거운 생활”의 실효성을 생각하여 볼 때, “즐거운 생활”은 공통된 주제를 음악·미술·체육의 각각 독립된 형태에서 비연계적으로 취급하는 모습으로서 각 교과영역들을 한 권의 책에 모아 놓은 듯한 양상의 교과주체적 모호성을 드러내면서, 결국 “즐거운 생활”의 재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통합교과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모순적인 학습은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작업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고,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통합교과의 명분과 위상은 회복되어야 한다.

한편, 초등학교에서의 중·고학년의 음악활동은 종종 그림 및 신체활동을 동시에 수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참고: 교육인적자원부, 2004, p. 168, p.186). 즉, 초등 음악교과서에는 음악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 음악을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악수업은 다른 예술영역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수동적인 음악학습을 지양하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물론 효과적인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교사교육제도의 과감한 개혁이 요구되지만, 이와 동시에 교사들의 실천적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은 통합의 본질적 의미에서 벗어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통합

교과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한 채 학교현장에 통합교과가 성급히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역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음악수업이 종종 다른 예술영역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음악적 차원에서 너무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에서 진술된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으로부터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으로의 방향전환에 대한 실천을 목적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한 후에, 이를 기초로 수업의 구조와 지도방법 그리고 실행을 위한 수업모형을 구안하고자 한다.

II.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이란 다른 예술교과의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음악수업을 의미한다(민경훈, 2004, p. 121). 서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통합예술적 접근을 통한 교수법들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오르프(C. Orff)나 자크-달크로즈(E. Jaques-Dalcroze)와 같은 음악교육자들은 음악교육에 다른 예술과의 통합을 시도한 사람들이다. 자크-달크로즈의 신체표현을 통한 음악교육방법과 오르프의 무대음악극·언어·신체 등을 통한 음악교육 방법 그리고 인지학의 선구자인 슈타이너(R. Steiner)가 모든 교과에 예술적 요소를 적용시켜 통합적으로 지도한 모델 등은 예술간 혹은 교과간의 통합성을 확연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오늘날 기초음악교육(Elementare Musikerziehung)에 바탕을 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음악수업은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참고: 독일의 음악교과서 “Rondo”). 이처럼 오늘날 서유럽(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미술·음악·연극 등을 통합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의 형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은 기능위주의 편향적인 음악교육의 단점을 극복하고, 즐겁게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음악성을 개발시킨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진다.

초등학교에서의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심미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이 모든 아동의 권리라는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Bloomfield, p. 2). 문화예술이란 개념적 차원에서 예술의 근원에 대한 이해는 과거와 현재에 있어 전통성과 창조적 예술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미래의 초등음악교육의 모델로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음악을 주체로 미술·무용·연극과 같은 예술영역이 조화롭게 통합하여 음악학습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은 각각의 예술영역을 이해하고, 예술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며 조작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역시 이러한 학습 활동은 다른 지적과목들에서 배운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발도르프 학교의 창시자 슈타이너는 “7-14세 시기(초등학교의 과정과 비슷함) 아동의 다양한 지식의 주된 원천은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요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예술에 대한 어린이들의 본능적인 열정은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 날부터 발휘되어야 한다. 각각의 예술분야들이 고유의 인식론적 지식영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공통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예술적 활동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탐구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초등학교 음악교육은 아동의 다양한 예술적 취향을 고려한 지도방법으로의 접근과 음악·미술·무용·연극 활동이 서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형태에서 음악적 소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아동의 창조적 자아발현에 대한 가능성을 주고, 아동의 예술적 성장발달단계를 올바르게 반영하여 그들의 예술적 사고를 촉진시키며, 또한 예술적 표현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비록 음악·무용·연극·미술이 각각 고유한 예술영역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예술적으로 중복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각 예술영역들 간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양식들을 인정하면서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동들이 예술적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교사로부터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는가에 따라 상당히 예술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드만(E. Nordmann)은 “교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예술교육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

생들의 예술적 성장과정을 기록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며 그리고 생각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아동들이 풍부하게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Nordmann, 1996, p. 134). 이와 같이 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의 밀접한 관계성은 매우 의미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예술을 배움의 중심적 요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음악교과는 국가교육과정의 범례를 준수하면서 방법적 측면에서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미래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수방법을 최적화시키고, 학습의 잠재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음악을 중심으로 다른 예술영역들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지향함으로써, 아동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적 영역의 도움을 받아 음악수업을 즐겁게 그리고 음악에 자신감을 얻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으로의 변화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교과의 중요한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국가 교육과정 2000(Dfee & QCA, 1999)의 입법은 새 천년 예술교육과정의 교수와 학습 잠재력을 최대로 촉진시키고 있다. 이미 1994년에 미국의 음악교육자협의회(MENC)는 미국 교육개혁법에 따라 새로운 음악과 교육과정에 “타 교과의 통합성”을 제시한 바 있다. 예술을 배움의 핵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이러한 큰 변화는 학생과 교사에게 국가가 제정한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더 넓은 범위의 개인적인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예술학습의 다양한 경로 중 하나인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특별히 선호하는 예술영역의 도움을 받아 음악적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그들 자신의 음악을 성공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개발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로 예술의 다양한 형태를 종합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예술적 창의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영역들의 배움을 장려하는 중요한 동맥과 같은 구실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학급 또는 특기·적성반을 통해서 통합예술적 음악수업은 프로그램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훈련과 능숙함에 따라서 확

장되어질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그들 자신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미술·무용·연극과 같은 예술영역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음악적 능력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음악교과가 독립된 교과라는 점에서 다양한 예술영역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이 예술의 혼합성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예술영역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기술적인 방법들을 허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Ⅲ. 통합예술적 음악학습의 구조 및 지도방법

1.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의 예술적·심미적 양상

아동들은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스러운 예술활동은 어른의 문체적 행동의 모방을 넘어선 것으로서 초등학교 시절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Childs, 1996, p. 21). 문화적 형태로서의 예술의 근원에 대한 이해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전통성과 창조성이라는 예술사이의 고리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술에 대한 이해적 활동은 유·초등학교 시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한다. 아동들은 자신의 생각을 음악·무용·미술 또는 짧은 연극과 같은 예술의 형태로 변형시키는 인식의 과정을 체험하는데, 이 같은 다양한 예술형태로의 실천은 예술로서 공유되는 상호적 관계 혹은 공통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적인 예술양식들을 인정하고 또한 각각 요구하는 기술적 방법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다른 예술영역들을 각각 존중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은 악기 혹은 목소리에 어떠한 색채가 어울리는지, 리듬에 어떠한 신체의 움직임이 적합한지 등과 같이 예술적 통합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술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창작·실현·반응 그리고 맥락적 이해의 획득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하게 경험한 것들은 인지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을 끌어내면서 그들의 심

미적 감각을 활발하게 발전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통합예술적 음악 활동이 학생들의 창조성과 예술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의 심미적 반응은 깨달음의 느낌을 통하여 활발하 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느낌은 특별한 예술형식을 제작하고 감상할 때 발생 한다(Binns, 1994, pp. 27-28). 즉,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할 때, 슬프고 엄숙 한 본질을 가진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때 그리고 특별한 그림을 보았을 때 이러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다.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을 통한 심미적 교육은 “창작의 과정”, “예술적 표현”, “비판적 평가”, “다양한 맥락에서의 예술의 이해”라는 네 가지 단계의 복잡성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복잡성은 음악, 미술, 무용, 연극이라는 네 가지의 예술형태와 관련되어 있다(Clark, 1990, p. 36). 다음 <표 1>은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에서 미적체험을 위한 교 사의 역할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 1>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	
1. 사고의 형성을 도움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의 동기유발 -시각화와 이미지화 -듣는 것, 움직임, 보는 것, 말하는 것에 대한 생각 -느낀 것에 대한 적절한 단어사용
2. 사고의 시험을 도움	-조언, 제안, 중재, 토의, 설명, 질문 -아동들이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에 참여할 때 교사의 설명 -음악·미술·무용·연극의 기술적용 -예술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사용의 확장
3. 사고의 전달을 도움	-조언, 격려, 평가, 토의 -학생의 예술행위에 가치를 둠(공연, 전시 등)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어휘사용. -학생들 레퍼토리의 성장에 대한 평가, 기록, 보고
4. 예술에 대한 반응을 도움	-의미 있는 예술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감정적이고 지적인 경험을 제공 -다양한 예술활동의 기회(연주회, 전시회, 극장, 박물관 방문) -전문적인 예술가와 함께 활동 -학생들의 이해단계와 관련해서 예술작품의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듣고 본 것을 통해서 획득된 어휘의 적절한 적용 -학생이 예술, 예술가, 작가에 관하여 읽고 쓰는 것을 기대

예술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용의 창작과정은 완성된 곡을 사용하여 일어날 수도 있으며, 완성된 그림을 통해서 음악이나 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역시 이러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인디언이나 조선 왕조의 의상, 음악, 그림, 무용과 같은 특수한 문화적 집단의 전통적인 예술을 학생들의 창조성과 연관시킬 수 있다.

음악·무용·연극은 공연예술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은 시간요소의 제한을 받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각예술과 디자인은 초시간적인 본질을 가진다. 이처럼 각각의 예술영역들은 상호 간에 구분되기 때문에 교사가 각각의 예술활동에 특별히 집중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에서는 각 예술영역 간의 상호적인 배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독립된 음악영역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악과 무용의 리듬적인 양상은 어디에서든지 불가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예술영역이 성공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배움의 주요영역으로서 리듬을 포함하는 음악과 무용을 독립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표 2>는 음악·미술·무용·연극과 관련하여 각각의 독특한 특성 및 공통되는 속성을 보여준다(Bloomfield, 2000, p. 8).

<표 2> 각 예술의 주요 요소들

예술요소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시간	제한적	비제한적	시간적	시간적
시각	화려	화려	화려	화려
운동감각	행동기술과 도구	행동기술과 도구	몸짓을 통한 상징적 표현	몸짓을 통한 상징적 표현
기술	목소리, 악기	그림, 조형시각	몸의 움직임	말, 몸의 동작
소리	유성	무성	무성	유성
청각	소리, 악보해석	무성	음악해석	문맥해석

2. 학습의 구조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이해·지식·기술의 단계에 기초하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각 아동들의 개인적인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방법과 학습할 과목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지식이 전제이다.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적절한 학습 환경의 제공 그리고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이러한 요소의 사이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적 창작과정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똑같은 생각 혹은 독립적인 행동이 비록 작품의 생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완성된 예술품의 본성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 역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작품 만들기의 행위만큼이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초등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통합예술적 지도방법과 학습의 구조는 각각서로 구별되는 주요한 예술영역들(음악, 무용, 연극, 미술)의 수용을 통해 학습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예술영역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교수와 학습원리는 학생들이 음악·무용·연극·미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아래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상호적 경험들을 획득하는 방법에 기초하여야 한다.

<표 3>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에서의 다양한 경험들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에서의 다양한 경험들	
1. 창작의 과정	예술적 생산의 체험적 과정
2. 예술적 표현	예술작품의 제작에 의한 예술적 실현
3. 비판적 평가	과정의 결과로서 예술품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4. 다양한 맥락에서의 예술의 이해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서 예술의 이해

첫 번째의 “창작의 과정”은 아동들이 춤추기·그림그리기·글쓰기 또는

작곡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의 참여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음악하기 · 그림그리기 · 춤추기 · 글쓰기 등을 통해서 아동들은 방법적 지식을 넓혀 나갈 수 있다. 두 번째의 “예술적 표현”은 아동들이 학창시절을 통하여 성장하는 동안 각각의 예술형태들과 더불어 그들의 예술적 지식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예술적 경험이나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예술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비판적 평가”는 음악 · 무용 · 연극 · 그림 등과 같은 예술활동에 관하여 써보거나 토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예술의 특성과 질에 대한 아동들의 지식을 쌓아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은 예술고유의 상징적 의미 또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명제적 논리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의 “다양한 맥락에서의 예술의 이해”는 아동들이 예술에 대한 사회적 · 문화적 · 역사적 양상의 발견을 통해 예술을 이해하는 안목을 넓히고, 자신의 연구를 깊게 하기 위하여 서적, 기록물, 예술품, 비디오, 오디오 등을 참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을 이해하는 것은 문맥적 지식의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에 제시된 네 가지 영역의 경로를 통해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질적으로 풍부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영역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서로가 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각 영역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 영역의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

“창작의 과정”에서 활동에 대한 참여는 예술품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을 돕는 다양한 기술과 해결방법을 극복하고자 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행위이다. 즉, 아동들이 음악을 만드는 것을 배우는 방식이다. 한 학급의 학생들은 한 학년을 마치면서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린 활동, 음악을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 타악기를 위한 음악활동 등 그들의 레퍼토리로써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품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다음 학년에서의 새로운 예술적 연구의 포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그들의 권리로 자신이 예술가라는 것에 대한 인정은 그들이 다른 예술영역을 동반한 음악적 예술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복잡성을 통해서 비롯한다. 이러한 복잡성에는 예술품의 창작에 대한 상상을

이끌어 내고, 해결책을 찾는 기술과 의사결정의 기술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음악을 듣고 춤을 출 때 스텝과 터닝에 기초한 연속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은 전문적인 통제와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이와 동시에 창조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초등학교에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에서는 아동들의 예술활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에 의해 마무리된 연구에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예술적 음악수업에서 예술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예술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다양한 예술품을 보고 분석하려는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정보와 예술품은 다양한 자료와 공연 그리고 전람회의 참관까지도 포함한다. 무소르크스키가 자신의 친구 하르트만(V. Hartmann) 유작의 전시회를 보고 작품에서 느낀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사실은 음악이 다른 예술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은 예술의 맥락에 익숙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미래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넓은 안목에서 예술에 대한 지식과 표현적 기술 그리고 참여, 레퍼토리, 비판적 평가, 다양한 맥락으로부터의 이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지도의 방법

통합예술적 음악프로그램은 음악영역의 주제가 타 예술영역으로 확대되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때 통합적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통합예술적 지도방법이 최상의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계획과정의 준비가 전제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 구별되는 단계가 있다.

- 제 1단계: 교사와 학생 간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에 의한 수업 목표의 확인
- 제 2단계: 4~6주 동안 이루어질 프로그램 준비
- 제 3단계: 개인의 역할 분담, 프로그램의 감독과 평가
- 제 4단계: 수업과정의 기록 및 보고

제 1단계에서는 선택된 주제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사고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음악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음악에 바

탕을 두고 춤이나 그림과 같은 예술영역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관람 또는 특별한 예술행사를 통해서 획득되어질 수 있다.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예술영역으로 연관시키는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예술적 정보와 사고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이러한 단계는 특별한 예술적 지식의 축적을 위해 중요한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표 4>는 통합예술적 음악프로그램의 1단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다.

<표 4> 통합예술적 음악프로그램의 제 1단계 과정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음악을 통해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을 써라 -표현적 형태: -필요한 기술: -완성될 작품: -주제에 대한 소리의 본질:	미술을 통해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을 써라 -표현적 형태: -필요한 기술: -완성될 작품: -주제에 대한 시각적 본질:	무용을 통해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을 써라 -표현적인 형태: -필요한 기술: -완성될 작품: -주제에 대한 무용의 본질:	연극을 통해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을 써라 -표현적인 형태: -필요한 기술: -완성될 작품: -주제에 대한 목소리/움직임의 본질:
↓			
통합예술적 음악프로그램			
음악·미술·무용·연극의 통합을 통해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을 써라 - 표현적 형태: - 필요한 기술: - 완성될 작품: - 주제에 대한 통합적 본질:			

제 1단계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의도된 주제가 무엇인지를 상상하여야 하고, 주제에 대한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험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수행하여야 할 과정의 경로를 미리 숙고하여, 그들이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 2단계는 수행과정의 경로에 대한 결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지도

방법적 기술과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구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도와 학습과정 그리고 완성되어야 할 결과물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 5>는 각 예술영역에서 경험되어질 내용들을 분류하여 범주화시킨 것으로서, 이러한 예술영역들이 통합적으로 경험될 때에 비로소 수업내용의 윤곽선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표 5> 통합예술적 음악프로그램의 제 2단계 과정

통합예술적 음악수업의 형태	
1주	수업제목: 주요 학습내용: 예상되는 결과물: 학생역할: 학습자료:
2주	
3주	
4주	

음악	
1주	
2주	
3주	
4주	

미술	
1주	
2주	
3주	
4주	

무용	
1주	
2주	
3주	
4주	

연극	
1주	
2주	
3주	
4주	

제 3단계는 교사의 지도방법에 대한 설계와 관계한다. <표 6>은 수업의 명확한 목적과 목표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윤곽을 도표화 한 것으로서, 학습 시간과 학습단위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의 활동은 음악을 사용한 15분정도의 짧은 어린이연극과 같은 수업이 계획되어질 수도 있고, 두·세달 정도의 긴 기간동안 집중적인 수업이 계획되어질 수도 있다. 수업계획은 서술식 형태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되고, 학습구조·듣기기술·학습자료·준비도구 그리고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고려하여 수업내용을 간단하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표 6> 교사의 지도방법에 대한 설계

수업 개관	
제목(목적): 중심 주제:	날짜: 시간: 학년: 이름: 장소: 통합예술적 맥락(음악/미술/무용/연극):
목표	1) 개념 2) 지식 3) 기술 4) 행동
1. 창의적 생각(사고형성)	1) 자극과 사고형성 2) 설명, 증명, 기술의 실천 3) 학생과의 상호작용
2. 창의적 과정(사고의 행위)	1) 반응 및 경험 2) 사고와 기술의 연결 3) 창의적 문제해결 및 해결책 발견 4) 주제와 관련된 예술형식으로의 사고형성 5) 자기격려 및 평가(활동의 집중 및 동료평가)
3. 창의적 의사소통(사고의 실현)	1) 활동의 완성 단계에 도달
4. 수업에 대한 창의적 반응	1) 목표도달에 대한 만족도 2) 학생 개인의 반응 3) 수업과정 중 교사역할에 대한 반응 4) 다음 수업의 전략

통합예술적 음악수업은 창작의 과정, 예술적 표현, 비판적 평가, 다양한 맥락에서의 예술의 이해란 네 가지 주된 경험영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음악학습을 전개하여야 한다.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수행될 수 있다.

- ① 수업의 목적, 목표, 통합예술적 맥락: 주요개념의 확인, 지식, 기술, 행동.
- ② 창의적 생각, 창의적 과정, 창의적 실현을 위한 지도방법적 전략.
- ③ 학생이 자신의 작품을 논의하는 방법 및 교수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교사의 자기평가.

4단계는 학생성취에 관한 기록이다. 교사는 학생이 그들의 능력수준에서 음악과제의 최고점으로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예측하고 확인하여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이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하는 과정과 프로그램을 결정하여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사고양식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활동의 주요내용을 형성한다. 특히, 교사가 학생들의 예술적 기술 및 사고를 분석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를 종합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아동들의 발달을 관찰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지만 성취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은 보통 규칙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표 7>은 학생들에 대한 성취기록의 양식을 보여준다.

<표 7> 학생들에 대한 성취기록의 양식

통합예술적 음악교육 기록	
이름:	학년 및 모둠: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에서의 성취단계	음악() 미술() 무용() 연극()
1. 창작의 과정(예술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2. 예술의 표현과정(예술적 표현의 능력): 3. 비판적 평가과정(자신과 동료의 작품에 대한 평가): 4. 다양한 맥락의 이해과정(예술활동에 대한 토의 및 정리하기):	전체적 논평:
종합 진술: 교사 서명: 날짜:	종합 점수 ()

IV. 통합예술적 음악학습의 실제: 바다

이 장에서 다루어질 “바다”에 대한 과제는 통합예술적 음악활동의 표본이다. 이 표본은 통합예술적 음악수업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어떻게 예술 상호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어떠한 학습경험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훌륭한 지도방법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지시키며,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예술적 이해를 깊게 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증진시킨다.

교실공간의 중앙에 앉아있는 3-4학년 어린이들에게 바다에서 가지고 온 다양한 조개·소라껍질 등을 보여주고, 큰 소라껍질을 귀에 대고 바다의 분위기를 느껴보게 한다. 그 다음 교사와 학생간의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아동들이 바다생물의 습성과 바다환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바다와 연상되는 것들을 그려보게 한다. 이와 같이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경험은 아동들이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 바다경치의 시각화는 그 이미지 자체를 신체활동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즉, 어린이들은 다리나 팔과 같은 신체를 통하여 잔물결, 파도, 거품의 형태, 바다생물, 바위 등을 구상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시각적·상상적 이미지와 신체동작으로 동질화된 바다의 분위기는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통하여 형상화되어질 수 있다. 오션드럼이나 레인스틱(레젠마커)을 통해서 파도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카바사를 이용하여 조약돌이 구르는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 교사가 모든 어린이들 앞에서 시범적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어린이들이 모둠으로 연주할 때 소리와 신체동작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소리구조에 따른 신체동작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소리를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소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고무되었던 학생들은 평가과정에서 토의나 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반성과 성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각 예술영역들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예술

영역의 전체를 활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풍부한 예술적 경험이 될 것이다.

칼라웨이(G. Callaway)는 예술창작의 본질은 완성된 작품의 아름다움에 있다고 강조한다(Callaway, 2000, p. 42). 이러한 작품에 대한 아름다움의 추구는 아동들의 음악적 경험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그들의 문화적 이해에 도움을 준다. 바다와 관련한 음악, 그림, 시, 춤의 예들을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과학책과 컴퓨터를 통해서 바다생물, 조수, 해양세계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창조의 기초가 되는 시각적 상상을 부추기는 실질적 요소들이다. 다음 <표 8>은 바다에 대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의 과제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8> 바다에 대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의 전체적 개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 표현: 바다 속 풍경을 소리로 묘사 - 기술: 타악기와 목소리 사용 - 학습자료: 드뷔시의 바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수족관	- 표현: 바다 속 풍경에 대한 벽화 - 기술: 바다 물체의 관찰-종이와 물감을 사용한 바다생물의 표현적 기술	- 표현: 바다 속 풍경을 표현한 춤 구성 - 기술: 신체동작의 질 - 형태의 반복 - 나와 친구간의 공동작업	- 표현: 이야기 또는 시의 극화 - 기술: 낭독 - 독백과 집단 연기 - 즉흥 - 연극 - 간단한 마임
↓			
통합예술적 음악 프로그램			
- 표현: 학급에서 편집한 음악, 무용, 미술, 연극 - 기술: 신체동작, 목소리, 음악 합동 발표			

<표 9>는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특정 예술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활동내용들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 9> 각 예술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의 개관

통합예술 양식		
1주	제목 : 바다의 분위기(미술·무용중심) 학습 : - 바다그림을 보며 파도(잔잔함, 강함)의 표현, 바위와 모래형태의 표현, 밀물과 썰물, 겨울바다와 여름바다의 분위기 창출 목적 : - 음악교육에서의 미술과 무용의 역할 구성 : - 개인 및 공동체 활동 자료 : - 조약돌, 조개, 모래, 시, 그림, 다양한 색상의 스카프들 결과물 : - 바다와 관련된 시 또는 그림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한 무용 창작품 (1-2분정도의 길이)	
2주	제목 : 바다의 소리 (음악중심) 학습 : - 바다 속 풍경(생물과 식물)을 소리로 묘사, 리듬 및 음색을 이용한 바다 속 분위기 창조(바다동물의 묘사와 해저탐험가의 움직임, 낙지의 움직임), 타악기를 사용한 소리의 대비(큰고래, 작은 물고기) 목적 : - 소리의 이해 구성 : - 개인 및 공동체 활동 자료 : - 오르프악기, 마라카스, 손북, 차임벨, 오션드럼, 레인스틱 등 결과물 : - 음악형식에 따른 1분정도의 소리의 창작(오션악보 및 그림악보)	
3주	제목 : 바다의 소리와 생물(음악·무용중심) 학습 : - 음악을 해석하여 신체동작으로 바꾸는 단계 목적 : - 음악교육에서의 무용의 역할 구성 : - 개인, 2인, 전체학생 자료 : - 완성된 음악과 의상 결과물 : - 바다관련 음악 또는 학생들이 창작한 바다의 음악에 따라 바다의 분위기 및 생물을 표현하는 무용창작.	
4주	제목 : 바다에 관련한 시집(음악·미술·무용·연극의 통합) 학습 : - 이야기의 전체 학급 발표: 이야기나 시의 내용에 따라 바다의 분위기, 바다의 소리, 바다의 생물 및 식물을 음악과 춤으로 묘사하면서 연극 목적 : -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구성 : - 개인, 모둠, 전체학생 자료 : - 완성된 음악, 배경미술, 의상, 이야기 또는 시 결과물 : - 음악, 미술, 무용을 통합한 음악연극작품 완성	

<표 10>은 <표 9>에 제시된 3주째 내용에 대한 학습활동의 예이다.

<표 10> 학습활동에 대한 개관

학습활동의 개관	
제목: 바다의 소리와 생물(음악·무용중심)	
목표	- 개념: 바다 생물의 자연스러운 동작에 관한 이해 - 지식: 음악과 무용을 통한 바다 속 풍경의 구성 - 구성: 개인, 2인조, 모둠, 전체, - 기술: 음악과 무용사용, 완성된 음악에 맞추어 무용창작(형태, 분위기 형상) - 예술적 행위: 무용을 통합한 심미적이고 창조적인 음악활동
창조적 생각 (사고의 형성)	- 빠르게 이동, 느리게 이동, 방향전환, 갑자기 멈춤 - 적절하게 일반적인 공간을 사용함 - 느리게 올라오고 내려감 - 파도처럼 갑자기 달리고, 땀 - 천천히 구부리고 펴 - 경험 및 영상과 관련시킴 - 동작의 기술: 찍기, 구르기, 회전하기, 뛰기, 돌기, 비틀기, 뜨기 - 소리와 동작의 조화
창조적 과정 (사고의 행위)	- 바다생물 이름 부르기 - 관찰 및 분석: 모양, 방향, 동작의 단계와 질 1) 신체: 큰·작은 물고기의 움직임, 계의 총총걸음, 문어의 다리 감기, 물고기의 숨기 2) 악기: 해초의 움직임(차임벨), 고래의 움직임(큰북), 문어의 움직임(탬버린), 파도의 소리(오션드럼), 모래표현(라셀), 물개의 소리(귀로) - 학생의 제안을 사용, 분석과 종합의 원리 위에서 실천
창조적 의사소통 (사고의 실현)	- 실행(무용과 음악): 동의한 순서에 따라 실행 - 활동: 개인·2인조·모둠·전체 - 자료: 음악(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수족관), 바다와 관련한 다양한 음악, 다양한 색상의 스카프(파도의 움직임, 해초의 움직임)
창조적 반응 (평가)	- 목적의 달성과 목표의 도달 - 수업내용에 대한 학생의 반응 - 각 예술영역의 활동과 관련해서 학생의 반응에 대한 관찰 및 평가 - 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자아반성 - 다음 단원의 전략

V. 결 론

초등학교에서는 통합예술적인 형태로 음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은 심미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모든 어린이의 권리이고, 초등학교에서는 감정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따라서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은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촉진시키고, 예술적 표현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근본 원리로 삼아야 한다.

미래의 초등음악교육의 모델로서의 통합예술적 음악교육이 음악을 주체로 미술·무용·연극과 같은 예술영역을 조화롭게 수용한 예술교육으로 접근할 때, 학생들은 예술적 안목을 넓혀나갈 수 있고, 각각의 예술영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활동은 다른 지적과목들에서 배운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음악교육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예술적 감각을 고려하여 음악·미술·무용·연극 등이 서로 연계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비록 음악·무용·미술·연극 등이 고유의 인식론적 지식영역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 중복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합예술적 활동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탐구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의 초등학교 음악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의 광범위한 과목들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다양한 예술영역들을 바탕으로 즐겁게 음악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초등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교수와 학습은 다양한 예술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음악학습활동이 다른 과목들에게 힘을 실어줄 때 자신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 미래의 초등학교 음악교육은 이러한 점들을 숙고하여 음악교육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장려되어야 된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4). **초등음악교사용지도서 음악4**.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민경훈 (2004). 초등학교 음악교육에서 통합예술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pp. 119-142). 제20권 1호. 대구: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민경훈 (2004). 초등학교에서 기초 음악교육의 수용적 가치와 활동구성에 관한 논의. **초등교육연구논총** (pp. 63-81). 제20권 2호. 대구: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최시원 역 (子安美知子) (1992). **슈타이너 학교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Binns, T. (1994). *Children making music*. Hemel Hempstead: Simon and Schuster.
- Bloomfield, A. (1998). *The artistic experience*. Aspects of Education No. 55, University of Hull.
- Bloomfield, A. (2000). *Teaching integrated arts in the primary school(Dance, drama, music and visual arts)*. London: David Fulton Publishers.
- Callaway, G. and Kear, M. (1999). *Teaching art and Design in the primary school*. London: David Fulton Publishers.
- Childs, J. (1996). *Making music special*. London: David Fulton Publishers.
- Clark, V. (1990). *Music through top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bert, J. (1981). *Musical Starting Points*. London: Ward Lock Educational.
- Keller, Karl-Heinz, u.a. (1998). *Rondo 3-4*. Offenburg: Mildenberg.

- Keller, Karl-Heinz, u.a. (1998). *Rondo 5-6*. Offenburg: Mildenberg.
- National Curriculum Musik Working Group (1995). *Teaching music in the national curriculum*. Dxford: Heinemann.
- Nordmann, Elmar. (1996). *Psychologie der Kreativität*, München.
- Ridgley, S. and Mole, G. (1997). *Sing and say it 7*. Woodford Green: International Music Publications Ltd.
- Sedgwick, F. (1993). *The expressive arts*. London: David Fulton Publischers.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Integrated Arts in Music Class of Elementary School

Kyung-Hoon Min

The teaching and learning framework for the music is designed as a principal plan that recognises distinctive and interrelated areas of study in each major art form - music, visual art, dance and drama - which are part of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eaching and learning principals are based on the ways in which children acquire knowledge, skills and interrelated experiences through four types of engagement: 1) art-making as a process, 2) realising through art by producing an artifact, 3) critical responses to the arts as process and product, 4) contextual understanding of art.

Firstly, art-marking includes all the participatory experiences or practical engagement of children as they learn how to compose music, to paint, to dance, or to write. Secondly, as children progress through the school year their acquaintance with each art form deepens. They acquire knowledge which is synonymous with the level of their experience or repertoire. Thirdly, the practical experiences of the arts are supported by the ability to discuss or write about works of art, either dances, plays, paintings or pieces of music. These may have been produced either by children or professional artists. This area of understanding is referred to

as propositional knowledge because it reflects the pupil's understanding or the meaning, action or symbolism inherent in the arts. Fourthly, discovering about the social, cultural or historical aspects of the arts means that children can refer to books, recordings, artifacts, video and CDs in order to broaden their horizon and deepen understanding of their own work. Finding out about the arts in this way encourages children to acquire contextual knowledge.

Keywords: music education, elementary music education, integrated arts model.